



2019학년도 11월 1주 주간(일일)교육활동계획

다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862-0133)

<부모교육통신>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않는 우리 아이(고개만 끄덕이는 아이)

어른들이 물어보면 땡그란 눈은 더 커지기도 하고 금방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은 하지 않고 한참을 기다려서야 간신히 고개만을 움직입니다. 기다리는 어른들은 답답하다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왜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인지 아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에 대해서 “이 놀이가 하고 싶었다는 거구나”, “이 과자를 먹겠다는 거구나”, “○○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인지 알겠어.” 라고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것에 지지하며 아이의 표현을 대신 읽어줍니다.

▶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결정하기도 쉽게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키즈카페는 친구랑 블록 놀이, 자전거 놀이, 소꿉놀이도 할 수 있는 곳이래. 한번 가볼까?”, “○○이가 키즈카페에 안 간다면 우리는 집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탈 수도 있어”라고 아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의사결정 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이가 결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 줍니다.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부모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대답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답답하다 못해 화도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유를 갖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서 스스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는 또래들과의 관계나 유치원 생활에서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부모와 있을 때 표현이 많을 수 있으며 집이 아닌 외부에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거나 그래서 표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에 부모와의 사이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에게 질문에 대답하는 표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싫어요”라고 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절하거나 싫다고 해도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때로는 질문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어른의 입장을 설명하여서 아이를 안심시켜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는 화가 나지 않았어.” 등으로 부모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아이에게 왜 대답하기 어려운지를 물어 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 또한 아이에게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서툴지만 간략한 한마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